



## 성기능 장애,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

이윤수 명동 이윤수 비뇨기과병원 원장

**남** 성이란 존재는 우리나라나 전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 남성 오천명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조사가 나왔다. 실제 성기능에 문제가 있으면서도 많은 남성들이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남성도 자신의 성에 문제가 있어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막상 병원에 가기를 꺼려한다.

*조사에 의하면 40세* 이상 유럽 남성들의 44%가 이미 발기부전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에게 자신의 발기부전에 대해 털어놓는 것은 힘들다고 하였으며, 막상 발기부전 환자의 80%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도 유럽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 우리나라 남성처럼 변강쇠 신화에 감격해 하며 정력제를 찾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많은 남성들이 40대 중년이 되면 신체적으로 옛날 같지 않다는 말을 하며 정력제를 찾아 나선다. 심지어는 좋다는 말만 나오면 아무리 힘든 곳도 마다않고 달려가며 혐오식품 조차도 인상을 찌푸려가며 먹는다.

---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자신의 문제를 병원에 와서 솔직히 털어놓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서 혹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생각에 남이 아는 것을 싫어하고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것이다.

**과거부터 선비의 위신과** 체면을 중요시하던 문화가 있어서인지 성적 능력이 없어진 자기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부부생활은 베일 속에 감추어 놓았으며 성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 하였다. 아녀자가 지아비에게 성에 대한 불평을 늘어 놓았다간 화냥년으로 몰려 처가로 쫓겨 날 각오를 해야 한다.

**현대에 들어서서도 여성이** 남편의 발기능력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성기능에 문제가 있더라도 고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집에서 큰소리치며 사는 데 문제가 없다.

**간혹 조금 개방적인** 집안 분위기라고 하여도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남편을 치료시키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간혹 센스있는 여성들은 성적 능력이 떨어진 남편을 위해 보약을 지어오거나 반찬을 색다르게 만든다며 수고를 한다.

**문제는 부인이 용기를** 내어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도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는 남성들이 있다. 얼마 전 내원하였던 K씨 부인의 경우도 남편문제로 하소연을 하러 왔었다. 발기에 문제가 생겼는지 부부관계를 가져본 지 오래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오해도 많이 했다고 한다. 술을 마시고 늦게라도 들어오는 날이면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혹시 다른데서 바람이라도 피우는 것이 아닌가, 내가 성적 매력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고민하였다. 친정 동생을 시켜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라고 시킬까도 생각하였다고 한다.

**드디어는 용기를 내어** 말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루는 것을 보면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많은 남성들이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막상 어렵게 찾아왔던** 남편은 진료 받은 후에는 좀더 빨리 찾아 올 것을 하면서 그동안 마음 고생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곤 한다.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고 강직도가 떨어지면 파트너에게 성적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성적 흥미도 점차 감소하기 마련이다. 문제가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비뇨기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행복한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㉞